

# 2015년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 리서치 결과\_

## 주 태국 한국문화원[김혜린] 결과보고

□ 목 차

No.	구분	내용	page
1	기관 및 단체	the world may never know	31
2		Noise Market	31
3		Cat Radio	31
4		BKKFM(Bangkok Farmer's Market)	31
5		so far sounds	32
6		bangkok music city	32
7		Live Music Tonight BKK	32
8		Way magazine	33
9		Bridge Art Space	33
10		ART 4 D	34
11		20 Something	35
12		HOF ART SPACE	35
13		Mustache	36
14		underground circus	37
15		Minimal Records	37
16	정책 및 소식	지난 8월 폭탄테러 이후 관광산업 위축, 그러나 여전히 공연/전시는 다양하게 진행	38
17		Six decades later, Thai-Korean camaraderie still strong 외	38
18		태국 정월대보름, 불력 12월 15일 리이끄라통 진행	39
19		Thailand celebrates long-reigning, but ailing King Bhumibol's 88th birthday 외	40
20		Agency of 'flag row' Taiwan K-pop star under cyber attack 외	43
21		Student activist arrested at football match 외	46
22		Khao San spirits dampened 외	51

23		Water fight with elephants in Ayutthaya 외	53
24		Leicester takes victory lap to Bangkok 외	56
25	공간	The Jam Factory	59
26		Imagine's House Cafe	59
27		ZudRangMa RecordsStudio Lam	59
28		Studio Lam	60
29		Rock Pub	60
30		Maggie Choo's	61
31	축제 및 행사	Reading Room	63
32		Stone Free Music Festival	63
33		Bangkok International Typographic Symposium	63
34		Cat Expo	63
35		Common fest 3	64
36		Area Five Bangkok Art & Market fair 2015	65
37		Bike for DAD 2015	65
38		Train Night Market	66
39		beer garden 2015 central world 외	66
40		Bukruk festival	67
41		International Festival of Language & Culture	67
42		The Japanese film festival 2016 - Shapes of Love	68
43		BANGKOK's First Idea FESTIVAL 2016, Bangkok Edge	68
44		Neo Fest Market	68
45		1600 pandas coming to BKK	69
46		Bangkok Comic Con 2016	70
47		Sunset Beach music fest	70
48		Kolour in the park	71
49		Nimman street music festival	71
50	Bangkok Street Show	72	
51	인물	Mohawk fest #1	72
52		Craft Beer Rock	73
53		Tokin Teekanun	74
54		Ms. Laila	74
55		Phum	74
56		Srirajah Rockers	75
57		Ugly Mountain	75
58		The Sweet Eyes	76
59		The Super Glasses Ska Ensemble	76
60		Arnont Ngyo	77
61	기타	The way of K-POP in Thailand	78
62		태국 치앙마이 로컬뮤직씬	78
63		태국, 재팬파운데이션의 활약	79
64		님만해민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79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the world may never know		
유형	다원(기획)	장르	축제(음악)
<p>음악축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획자 그룹, 대표는 아래 인물에 소개된 Tokin. 12월에 진행하는 스톤 프리뮤직페스티벌과 4월에 진행하는 킵온더그래스포크뮤직페스티벌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공연과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 중.</p> <p><a href="http://www.facebook.com/TheWorldMayNeverKnow.HomeVideo">www.facebook.com/TheWorldMayNeverKnow.HomeVideo</a></p>			

기관/단체명	Noise Market		
유형	아트마켓	장르	수공예
<p>일시 : 2, 5, 11월 일년에 3번</p> <p>장소 : Museum Siam(<a href="http://www.museumsiam.org">http://www.museumsiam.org</a>)</p> <p>프로그램 : 아트마켓, 플리마켓, 공연, 영화, 전시 등</p> <p>웹 : <a href="http://www.facebook.com/noisemarketfest">www.facebook.com/noisemarketfest</a> / 연락처 : noisemarketfest@gmail.com</p> <p>연중 3회 개최하는 아트마켓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지만, 다양한 행사들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복합문화 축제. 수공예품부터 레이블마켓, 뮤지션들의 MD판매부스 그리고 벵룩시장까지 다양한 것들이 진행되고,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소풍의 기분을 낼 수 있는 마켓이라고 한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버스킹 형태의 공연이 인상적이라고 한다. 현재 예고된 다음 마켓의 레이블 참여업체수만 60개에 이른다. 로컬레이블들이 이러한 마켓에 참여하여 MD를 판매하고, 본인들의 공연을 프로모션하는 것이 일상적인 홍보방안의 하나이다. 다음 아트마켓에 한국팀의 공연을 추진 중에 있다.</p>			

기관/단체명	Cat Radio		
유형	라디오방송국	장르	인디
<p>웹 : <a href="https://www.facebook.com/thisiscatradio/">https://www.facebook.com/thisiscatradio/</a> <a href="http://www.thisiscat.com">www.thisiscat.com</a></p> <p>인디음악 허브역할을 하는 채널, 라디오방송 및 차트생성.</p> <p>아래 썬엑스포를 만들어가는 단체. 이 단체는 처음에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모인 조직을 상설로 운영하면서, 차트, 라디오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p> <p>축제를 운영하던 조직이, 어렵게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부분이다. 다양한 활동과 홍보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운영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p>			

기관/단체명	BKKFM(Bangkok Farmer's Market)		
유형	마켓	장르	-
<p><a href="https://www.facebook.com/bkkfm/">https://www.facebook.com/bkkfm/</a></p> <p><a href="http://www.bkkfm.org">http://www.bkkfm.org</a></p> <p>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마켓이다. 주말시장이라는 형태가 매우 흔한 이 곳에서, 느리게 살며, 키워서 먹고,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는 마켓</p>			

이다. 공연을 해보려고 연락을 했고, 달아서, 미팅을 가졌는데, 방콕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활동을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태국사람이 아닌 친구들도 있었다. 마켓을 중심에 놓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였다. 마켓에서는 각자가 키운 것들을 가져오는 것과 워크샵을 통해서 간단한 채소 재배방법, 요리법 등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한달에 한 두번씩 방콕의 곳곳에서 열리는 이 마켓은 좀 특이하기는 하다. 이번 FLTA 일요일 공연이 이곳에서 열린다.

기관/단체명	so far sounds		
유형	축제	장르	음악
<p>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일상 속의 음악축제. 도시별로 공연자가 지원해서 자신의 이력을 띄우고, 공연을 주최할 사람들이 또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세계와 연결된 행사들은 한국은 동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태국에는 대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다. 언어와 연결해서 해석이 가능할까 싶다. 컨셉이 재미있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연결의 주최가 되는 측이 얼마만큼 개입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좀 더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한번은 시도해보직하다.</p> <p><a href="https://www.facebook.com/sofarsounds">https://www.facebook.com/sofarsounds</a>  <a href="https://www.facebook.com/sofarsoundsbkk">https://www.facebook.com/sofarsoundsbkk</a>  <a href="https://www.sofarsounds.com/bangkok">https://www.sofarsounds.com/bangkok</a></p>			

기관/단체명	bangkok music city		
유형	웹사이트	장르	공연
<p><a href="http://bangkokmusiccity.com/">http://bangkokmusiccity.com/</a>  <a href="https://www.facebook.com/BangkokMusicCity/">https://www.facebook.com/BangkokMusicCity/</a></p>  <p>[Venue] PLAY YARD by Studio Bar @ Lat Phrao soi 8          POSTED ON JANUARY 3, 2016</p> <p>방콕의 음악공연을 홍보해주는 사이트, 영어로 정리되어 있어 접근이 편리하고 페이스북도 있어서 연결이 잘되어지게 해 두었다. 이러한 플랫폼이 잘 되어있어 참 좋은 방콕이다. 그러나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힘들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p>			

기관/단체명	Live Music Tonight BKK		
유형	웹사이트	장르	공연
<a href="http://bkk.livemusictonight.co/">http://bkk.livemusictonight.co/</a> <a href="https://www.facebook.com/livemusictonightbangkok">https://www.facebook.com/livemusictonightbangkok</a>			
<p>Discover your local music scene</p> <p>역시 위의 사이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 후기를 다루는 사이트들도 많은데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사이트들의 존재도 훌륭하다.</p> <p>물론 이러한 정보의 전달이 로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그들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데에 한계는 있지만 말이다.</p>			
			

기관/단체명	Way magazine		
유형	잡지(매체)	장르	전장르
<a href="http://waymagazine.org/">http://waymagazine.org/</a>			
<p>방콕에는 수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매거진들이 있다. 이 매거진들은 대부분 무료이고, 광고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많은 잡지들이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한다. 무가지이고 갖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말이다. 다양한 정보들이 업로드되고, 오프라인 잡지도 출판하고 그 외에 다른 간행물들도 발간하는 것으로 보인다. 웹에서의 다양한 정보들이 태국어로 노출되고, 오프라인 잡지로 발간하는 것을 병행하는 점 또한 잘된 프로세스이지 않을까 한다.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 방콕의 문화행사들은 홍보처가 많아서 일하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p> <p>* 주의점은 본인이 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오해들은 업무 중에는 왕왕 발생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오해 혹은 오류들이 발생할 소지는 매우 높다.</p>			

기관/단체명	Bridge Art Space		
유형	공간	장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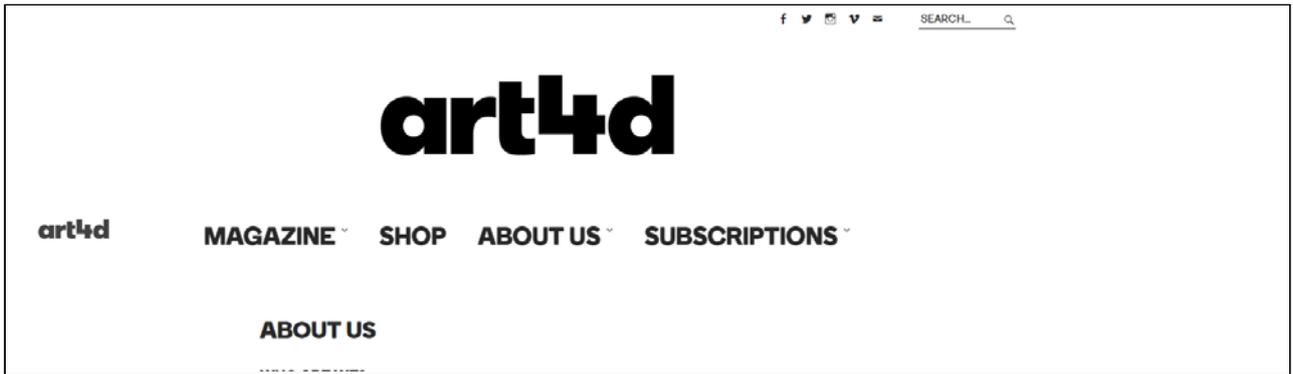
<https://www.facebook.com/bridgeartspace/>

전시를 위한 문화공간 겸 카페. BTS 사판역신 인근에 위치함.

사촌지역에는 이러한 공간들이 밀집해 있음.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건물을 통째로 활용한 전시공간.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이는 카페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임. 영화상영이나 공연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수라삭역을 중심으로 인근으로 퍼져있음. 그 중 한 공간임. 지난 북룩페스티벌 전시도 함께 진행을 함.



기관/단체명	ART 4 D		
유형	온오프 잡지	장르	디자인
<p><a href="http://art4d.com/">http://art4d.com/</a>  <a href="https://www.facebook.com/art4dMagazine/">https://www.facebook.com/art4dMagazine/</a></p> <p>디자인과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홈페이지 운영, 월간 잡지 제작 및 주간 뉴스레터 발송, 그리고 연간 엑스포와 전시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단체임. 홈페이지가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음.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스타벅스나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이 눈에 띈.</p>			



기관/단체명	20 Something		
유형	공연	장르	음악
<a href="https://www.facebook.com/20somethingbar">https://www.facebook.com/20somethingbar</a>			
<p>공간을 가지고 있는 기획집단. 음악과 관련한 공연을 수시로 개최한다. 공간이나 규모도 매 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씨암투나잇이라는 온라인매거진과의 연대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소식이 퍼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간을 통한 수익으로 이러한 행사들이 무사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p>			

기관/단체명	HOF ART SPACE		
유형	문화공간	장르	전시
<a href="http://www.facebook.com/HOFArtSpace">www.facebook.com/HOFArtSpace</a> <a href="http://www.hofart-bkk.com/">http://www.hofart-bkk.com/</a>			



프라카농에 위치한 전시공간 겸 문화공간, 색깔이 강한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문화운동의 지원 측면도 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태국의 대부분의 전시에서는 적극적인 판매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작가들의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공간 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기관/단체명	Mustache		
유형	공연공간, 바	장르	음악

[www.facebook.com/themustache.bangkok](http://www.facebook.com/themustache.bangkok)



매일 파티가 열리는 클럽, 가끔 라이브공연이 진행되기도 한다. 방콕의 이러한 업소들은 우리나라처럼 공연과 음주가 분리되는 느낌이 아닌, 공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술도 지속적으로 먹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공연보다는 음주가 좀 더 두드러지는 형태이고, 음악은 단지 배경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라이브공간들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비슷한 곳이다.

기관/단체명	underground circus		
유형	기획커뮤니티	장르	음악(하우스,일렉트릭)

<https://www.facebook.com/undergroundcircusbkk>



하우스, 일렉트릭 음악의 행사를 만드는 단체이다. 태국 내 보다는 해외의 아티스트들을 초청한 공연들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활동이 눈에 띄고 자신들의 무대가 태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모습이 재미있다.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러한 행사들의 예산일진대, 입장료와 행사에서 관객들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수익이 창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그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이가 없더라.

기관/단체명	Minimal Records		
유형	레이블	장르	음악(락)

[www.facebook.com/MinimalRecords](http://www.facebook.com/MinimalRecords)

[www.facebook.com/minimalstudio.page](http://www.facebook.com/minimalstudio.page)

대표 Sumet, 084-169-3283, [sumetarch33@hotmail.com](mailto:sumetarch33@hotmail.com)

[www.facebook.com/nosignalinput](http://www.facebook.com/nosignalinput)

치앙마이에 레이블은 summer disc, made in chiang mai, opal studio, minimal records가 있다. 이중 미니멀레코드는 컴필레이션이 방콕의 곳곳 레코드샵에서 보일만큼 네트워크가 훌륭한 곳이지 않을까 했다. 전국 네트워크에 대해서 파악된 바는 아직 없지만, 다른 레이블보다는 방콕과의 친밀도가 높은 것 같다. "노시그널인풋"이라는 컴필레이션 앨범을 2007년에 처음 만들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으며, 동명의 공연브랜드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연들에 개입하고 진행하고 지역레이블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앙마이의 음악씬이 자리잡지 못했고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다보니, 그것이 안정기까지 들어가려면 꽤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활동들에서 수입이 없어서 언제든지 그만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대표의 말에서, 언제든지 치앙마이의 음악씬은 사라질 수 있겠구나하는 예상이 된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책 및 소식]

정책 및 소식	지난 8월 폭탄테러 이후 관광산업 위축, 그러나 여전히 공연/전시는 다양하게 진행
<p>지난 8월 17일 에라완사당의 폭탄테러로 인해 태국정부는 관광산업의 위축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 중에 있음.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들이 위축되는 분위기는 더욱 없음. 우기를 벗어나 곧 건기에 접어들면, 좀 더 많은 페스티벌과 야외행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음.</p> <p>벼룩시장 혹은 아트마켓과 같은 야시장이 번성하여, 매주 주말이면 곳곳에서 이러한 마켓이 형성되고 이 곳에는 필히 무대가 생겨나고 공연이 이루어짐. 밴드문화가 한국에 비해서 확연하게 대중적임. 또한 인디씬의 형성도 한국에 비해서 광범위함.</p>	

정책 및 소식	Six decades later, Thai-Korean camaraderie still strong 외
관련링크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738960/thais-koreans-respect-war-fallen">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738960/thais-koreans-respect-war-fallen</a> <a href="http://www.bangkokpost.com/travel/tourists-and-expats/730892/vegetarian-festival">http://www.bangkokpost.com/travel/tourists-and-expats/730892/vegetarian-festival</a> <a href="http://bk.asia-city.com/events/news/bangkok-best-halloween-parties">http://bk.asia-city.com/events/news/bangkok-best-halloween-parties</a>
<p>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즌이다. 다양한 야외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고, 홍보가 시작되어 조용하던 9월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거리마다, 식당마다 걸려있는 齋(제)는 야채를 이르는 말로, 불교의 의식 중 하나라는, 열흘 간 육식하지 않는 “깐째”가 돌아왔다. 거리 곳곳, 식당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 깐발은, 국교가 불교인 태국에서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교신자라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에 따라, 가족에 따라서 채식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집에서 깐째를 실시하고, 밖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깐째도 얼마 못가 사라지는 풍습이 되지 않을까한다.</p> <p>불교의 의식 중 하나인 깐째가 매우 중요하다면, 할로윈데이 역시 태국사람들에게는 큰 행사이다. 관광대국답게 이러한 축제일은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러니는 진정한 그들의 모습에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관광을 위한 전략인가, 그들은 진정 이러한 행사들을 즐기고 있는 것인가, 태국인을 위한 태국인가, 관광을 위한 태국인가,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하는 할로윈행사들이다.</p> <p>덧붙여, 태국은 아주 오래전 버마와의 전쟁 이후에 큰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이다. 최근이라고 하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태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태국 보훈처의 사업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것이 주요하다고 한다. 그들을 위해 한국정부는 따로 마을을 조성해 주었다. 시간이 한참이 흐른 지금, 그곳엔 참전용사가 거의 없다.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삶을 꾸리거나, 외지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마을을 꾸릴 때, 참전용사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인 마을회관을 조성해두었지만, 이제 그 곳에 모여들 참전용사들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 회관은 리모델링 중에 있다. &lt;Little Tiger Hall&gt;이라 명명한 이 공간은,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에 대한 역사 및 정보들을 전시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참전용사의 2,3세대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리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이다. 한국의 문화가 태국에 전파되기 전까지 한국은 한국전쟁에 자국민을 파견한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높았다고 한다. 현재 이 공간의 리모델링 및 전시에 자문을 하고 있다.</p>	



수가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대부분의 해외가 그러한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축제였다. 이것이 현지화라 한다면, 할 말은 전혀 없다. 로컬리제이션의 결과라면.....



정책 및 소식	Thailand celebrates long-reigning, but ailing King Bhumibol's 88th birthday 외
관련링크	<a href="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thailand-celebrates-long-reigning-king-bhumibols-88th-birthday">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thailand-celebrates-long-reigning-king-bhumibols-88th-birthday</a>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791917/across-country-around-world-thais-bike-for-dad">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791917/across-country-around-world-thais-bike-for-dad</a> <a href="http://www.nationmultimedia.com/national/Millions-bid-final-farewell-30275090.html">http://www.nationmultimedia.com/national/Millions-bid-final-farewell-30275090.html</a>

왕국인 태국에서는 좀 더 중요한 국경일이 있는데, 그것은 왕족들과 관련된 날들이다. 특히 왕이라면 말해 더 뭐할까, 국왕의 88번째 생일이 12월 5일이었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이 태국 전역에서 벌어진다. 생일날 오전에 왕궁 앞 행사장에는 방콕시민들로 인산인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열린 바이크포대드(Bike for DAD)도 인산인해. 어메이징 타일랜드다.

또 하나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태국에서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일한다. 공휴일이 아닌 것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인줄 알았다. 공휴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인데, 방콕의 곳곳에는 트리가 흔하디 흔하다. 메리크리스마스는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태국의 승려일지라도 말이다.

태국의 큰 스님 한분께서 지난 주 입적하셨다. 국민장으로 치러지고 있고, 티비 생중계도 진행된다. 왕족들도 상갓집에 모여앉아 추모하고 있다.



(좌, 국왕 생일기념식/우, 바이크포대드 2015.12.11.)

태국에는 일주일을 색깔로 구분해두었는데, 왕이 태어난 날은 월요일, 즉 노란색의 날이다. 그래서 왕의 기념일에는 노란색 옷을 입는다. 한나라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이 아닌 인간권력의 정점을 태국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이크포대드가 아닐까 싶다. 태국 전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국왕을 위한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국민의 건강을 세가지로 들고 있는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국왕을 숭배하는 기능 하나,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하나, 이렇다.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오묘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방콕 바이크포대드에서 본 그들의 행렬은 그 어떤 이벤트보다 장관이었다. 한곳을 향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다.

지나가다 한마디, 지난 10월-11월에 진행된 한태문화단체교류 <쌌쌌미쌌>이 방콕씨어터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가히 놀라운 결과다. 짧은 시간동안 이룬 그들의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http://www.bangkokpost.com/topstories/769964/a-dramatic-feast>



K-Lover's Night, 한류팬들을 위한 송년의 자리이다.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기도 하고, 5일 만에 사전등록 500명을 돌파하며 문화원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었던 행사이다. 전체 인원이 700명을 넘겼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주셨다.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흔적들을 지워주는 순간이다. 좌측 상단에 있는 태국의 'Bie KPN'이라는 가수. 한국에서 아이돌가수로 데뷔를 했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이다. 이 친구의 미소가 정말 살인적이었다. 문화원 행사에 참여하는 평균연령대를 과감하게 훑 떨어뜨렸던 행사이다. 장장 5시간 진행한 이 행사에 문화원 스태프뿐만 아니라 단기스태프들과 가드아저씨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고, 그들의 활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프롬로컬투아시아 두 번째, 12.25-27, 3일간 문화원 공연(상단 좌측), 타마하랏 공연(상단 우측), 트레인마켓 공연(하단 좌측)을 무사히 마쳤다. 문화원 공연에서는 태국뮤지션 PHUM과 함께 조인트공연으로 진행을 하였고, 타마하랏과 트레인마켓에서는 한국에서 초청한 스카웨이커스만 공연을 진행하였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일정과 야외에서의 공연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공연자도 스태프들도 힘든 일정과 더운 날씨를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렇지만 방콕과의 교류에 한발자국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어본다. (하단 우측 모든 공연을 마치고 한컷, 스카웨이커스)

정책 및 소식	Agency of 'flag row' Taiwan K-pop star under cyber attack 외
관련링크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833292/deadly-spiders-found-in-death-railway-cave">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833292/deadly-spiders-found-in-death-railway-cave</a> <a href="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art/832888/authorised-art-attack">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art/832888/authorised-art-attack</a> <a href="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music/831684/agency-of-flag-row-taiwan-k-pop-star-under-cyber-attack">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music/831684/agency-of-flag-row-taiwan-k-pop-star-under-cyber-attack</a> <a href="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music/831700/japan-rejoices-as-boyband-smap-averts-split">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music/831700/japan-rejoices-as-boyband-smap-averts-split</a> <a href="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art/830396/long-lost-multi-award-thai-film-rediscovered">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art/830396/long-lost-multi-award-thai-film-rediscovered</a> <a href="http://www.bukruk.com">www.bukruk.com</a> <a href="http://culture360.asef.org/magazine/bukruk-ii-urban-arts-festival-interview-with-myrtille-tibayrenc-and-nicolas-dalij/">http://culture360.asef.org/magazine/bukruk-ii-urban-arts-festival-interview-with-myrtille-tibayrenc-and-nicolas-dalij/</a> <a href="https://www.facebook.com/StoneFreeMusicFestival/?fref=ts">https://www.facebook.com/StoneFreeMusicFestival/?fref=ts</a>
<p>사뭇빠라간에는 홍수로 물이 넘치고, 피차눌룩에는 가뭄으로 물을 공급해야할 상황이다. 배수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핑계로, 홍수로 가득찬 물은 넘어갈 수 있지만, 가뭄은 어떻게 해야할까, 땅덩어리가 넓으니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연재해는 전세계 동시적인 일임을 느낄 수 있다. 최근 물리</p>	

면 죽는다는 거미가 깐차나부리에 등장했다. 위의 기사링크를 따라가면 물린 후의 징후가 담긴 사진도 있다. 웬만큼의 거미는 죽이지 않는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제 거미도 집에서 발견하면, 안녕이다. 방콕의 겨울은 늘 30도 주위를 서성거린다. 태국사람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 불어닥친 한파로 포털의 날씨가 가르키는 온도는 늘상 영하였는데, 반팔을 입고 춥다고 말하려니 좀 겸연쩍기도 하다. 겨울의 상쾌함과 긴팔 옷의 깔끔함이 점점 그리워지고 있다. 태국의 날씨가 매우 덥지를 않다보니 야외활동이 빈번해지고, 축제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다.

꽤나 오래 기다렸던 두 개의 축제와 한 개의 행사가 1월에 진행된다. 하나는 지난 12월에 진행을 예정하고는 공간사용의 문제로 연기해 1월 15일-17일에 진행한 스톤프리뮤직페스티벌이다. 사라부리(원래 돌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에서 진행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소음민원으로 인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진행하느라 한달여 연기되었다. 방콕에서 차로 1시간을 넘게 달려야 하는 이곳은 민부리, 총논이라는 곳이었는데, 편도 택시비로 축제 입장료를 지출했으니 그 거리는 짐작할만하다. 도착했을 때 느낌 것은, 허허벌판. 지평선. 공항 근처. 많은 모기 등등의 느낌이였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은 가진 것 없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다가왔다.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 너무 비슷한 모습에,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단 하나의 홍보물도 없는 공간에서 축제의 미래를 본 것 같아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할 것임을 예상했다.



또 하나의 페스티벌은 북룩페스티벌이다. 스트리트아트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이고, 그래피티 작가들의 작업으로 방콕을 덧씌우는 것이 메인 행사이다. 프로그램 중에는 음악공연과 워크샵, 강연, 그리고 실제 거리그래피티를 쇼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방콕의 중앙역 인근의 거리들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업을 볼 수 있는 스팟들도 안내되어 있다. 이 축제를 주목한 이유는, 방콕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됨에도 주최가 EU라는 점이다. 또한 축제홈페이지에는 유럽과의 교류를 중심에 두고 있다.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태국인들뿐만이 아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의도로, 어떻게 EU와의 관계를 맺었는지, 알아볼 부분이다. 그리고 북룩이라는 태국어는 Invasion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ASEAN의 지원으로 교류축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또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았다. 올해 북룩에는 한국작가도 한명 참여한다고 한다. 이 작가가 참여한 덕분에 한국문화원도 스폰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할 축제이다. 북룩티파티에서의 라이브페인팅 모습과 뮤직페스티벌의 모습.



태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아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하다. 일본식품의 진출을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문화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일본이 태국에서 한국보다 일십년 정도는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분야에서도 일본이 운영하는 재팬파운데이션은 1980년대 초반에 방콕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일본엑스포가 지난주 센탄월드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알던 일본과는 사뭇 다른 상상 이상의 일본이 태국에는 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똑똑해서인지, 태국이 반일감정이 우리보다 덜하기 때문인지는 알 길은 없다.

이번 재팬엑스포를 전체 일정동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잠시 짬을 내어 둘러보았다. 얼마나 성대

하고 잘 싸여져있는지 궁금했다. 일단 규모에서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 예산의 차이는 거칠게 생각해도 다섯배는 날 것 같았고, 3일 동안의 출연진의 수나, 내외부를 관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까지, 말하면 입 아픈 지경이다. 아무래도 홍보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열수 정도 위다.



태국영화의 해외진출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전영화에서부터 최근작들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세계 곳곳에서 상영되거나, 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측 사진이 태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반종 감독인데, 굉장히 잔인한 공포물로 데뷔하여, 이후 다양한 영화를 찍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반종감독의 영화 중에 “헬로우스트레이저”라는 작품은 한국에서 울로케로 진행된 작품이다. 태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이 반종감독은 한국영화에 관심이 있는데,(지난번 BACC에서 진행하는 Cinema Diversity라는 프로그램에서 나홍진 감독을 초청한 반종 감독을 만난 적이 있다) 태국영화의 해외진출이 빈번해지는 시기라면, 아시아 최고영화제를 꿈꾸는(혹은 이미 완성한) 부산국제영화제 쪽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사가 눈에 들어 온 까닭이다. 태국영화가 어떠한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말이다.



케이컬쳐서포터즈 발대식이 지난 15일에 진행되었다. 케이컬쳐서포터즈는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의 현지 지원군인 것이다. 이 행사는 작년 대통령의 뉴욕문화원 방문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태국에서는 14명의 서포터즈가 임명되었다. 연예인을 비롯한 관련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한국문화 확산에 어떤 기여를 할지 새로운 기회의 장이 펼쳐질지 기대해보자.



<p>정책 및 소식</p>	<p>Student activist arrested at football match 외</p>
<p>관련링크</p>	<p> <a href="https://www.fungjai.com">https://www.fungjai.com</a>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863040/ja-new-arrested-at-chula-tu-match">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863040/ja-new-arrested-at-chula-tu-match</a>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834316/four-student-activists-released">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834316/four-student-activists-released</a>  <a href="http://bk.asia-city.com/city-living/news/bk-music-awards-2015">http://bk.asia-city.com/city-living/news/bk-music-awards-2015</a>  <a href="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art/874784/fun-hits-and-misses">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art/874784/fun-hits-and-misses</a>  <a href="http://www.bangkokpost.com/learning/learning-from-news/876620/amnesty-international-human-rights-report-2015-16">http://www.bangkokpost.com/learning/learning-from-news/876620/amnesty-international-human-rights-report-2015-16</a>  <a href="https://www.amnesty.org/en/countries/asia-and-the-pacific/thailand/report-thailand/">https://www.amnesty.org/en/countries/asia-and-the-pacific/thailand/report-thailand/</a> </p>
	<p>▶ Top 5 Albums</p> <p>Inspirative–Mysteriously Awaken</p> <p>Part Time Musicians–Guava Songs</p> <p>DCNXTR–DCNXTR</p> <p>Slur–B</p> <p>Wednesday–Lazarus</p>



► Top 10 Singles

Sqweez Animal-“Secretive”

UNDA-“Kowloon”

Modern Dog-“Today Last Year”

Solitude is Bliss-“Rich Man's War Poor Man's Blood”

Lala-“MOA192b”

Hugo Chakrabongse- “Hailstorms”

Montonn & Hana-“Be True”

Jelly Rocket-“Luem [Forgotten]”

The Yers-“Seb Tid Kwam Jeb Puad”

Gym and Swim- “Yuuwahuu”



► Best New Places for Live Music

Parking Toys' Watt / Whiteline / Soulbar

► Top 5 Gigs

The Hostess Club (Feb 19)

Pete Doherty, Moose (Feb 12)

How to Dress Well, Overtone RCA (Feb 17)

Peel Slowly and See by The World May Never Know, Moose (Apr 5)

Neon Indian, Live RCA (Nov 26)



▶ Music Video of The Year

Singto Numchoke—"Chan Ja Mee Ter Yu"

<https://www.youtube.com/watch?v=h-OfLcYZyY8>

▶ Busiest Music Promoters

Mind the Gap <https://www.facebook.com/mindthegapthailand/>

Have You Heard <https://www.facebook.com/HaveYouHeard.Live>



세계 로컬음악 네트워크, BEEHY에서 2015년도의 음악들을 모았다.

85+ music journalists from around the world collecting the best local sounds.

<http://beehy.pe/best-of-2015/thailand-2/>

<http://beehy.pe/best-of-2015/south-korea/>

한국도 있다. 한국의 필진은 음악웹진 웨이브의 편집장이다.

티비를 잘 보지는 않지만, 운동을 하러 가면 늘 켜져있는 티비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에 뉴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이틀간 가장 많이 노출되고, 비중있게 다루어지던 것이 이 엠네스티 인권보고서였다. 다른

내용은 현지어라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영어로 표기된 엠네스티와 휴먼라이츠라는 단어는 선명했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던 앵커의 진지한 모습이 각인되었다. 그래서 찾아보았다.(아래 링크는 엠네스티에서 발행한 각국별 코멘트이고, 그 아래는 태국과 관련된 전문이다.)

<https://www.amnesty.org/en/latest/research/2016/02/annual-report-201516/>

Thailand

Arresting peaceful critics for activities including staging plays, posting Facebook comments and displaying graffiti;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dismissal of international calls not to extend its own powers to excessively restrict rights and silence dissent in the name of "security".

이에 대해서 태국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생각보다 분량이 기니, 아래 링크를 따라가 읽도록 하자, 영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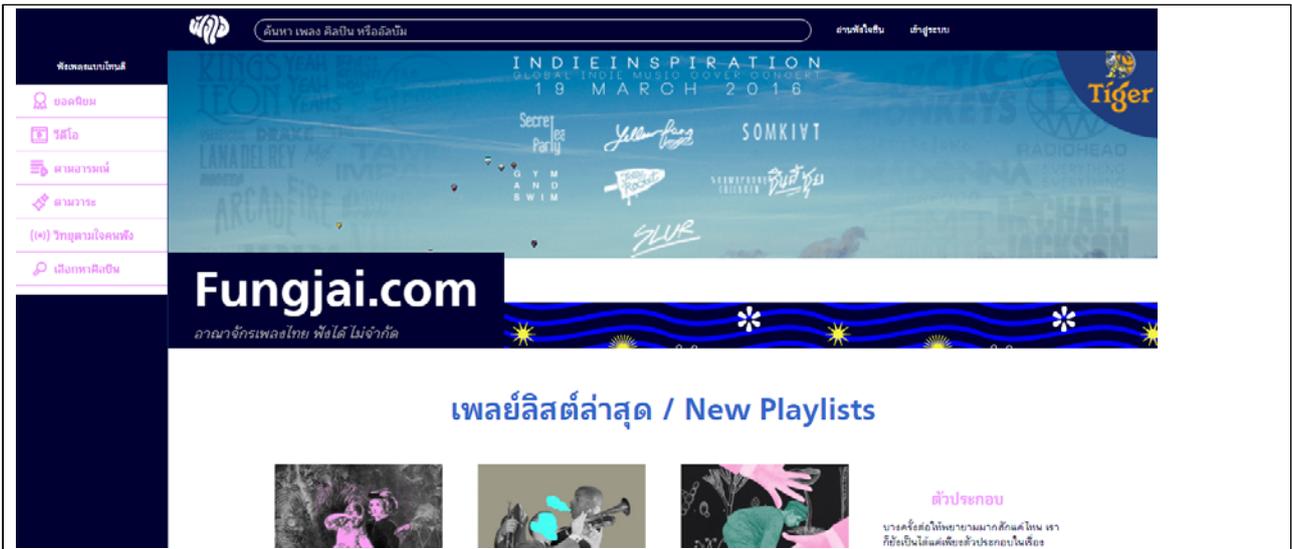
<http://www.mfa.go.th/main/en/media-center/14/64840-Thailand's-comments-on-Amnesty-International.html>

불안한 정국이긴 하다. 전 총리가 고발되었고, 경질되었고, 그리고 임시총리(한국의 합참의장정도)가 현재 2년 가까이 총리직을 수행 중이고, 이 직은 내년 7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이 개헌 중이고, 그에 따른 총선이 내년 7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다가, 불교과 국왕이 동급인 이 나라에서는 부처님과 국왕에 대한 불경스러운 이야기는 안된다.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하다.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위에 링크에도 걸려있는 활동가들을 막 잡아가는 이 상황은 엠네스티가 태국 내의 상황을 그리 막 곡해했다는 추청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클락슨이 거의 없고, 친절하기만한 태국의 속내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드러나는 것 이외에, 외국인에게 친절한 것, 웃으면 대하는 것 등등, 그 속에는 좀 다른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 물론 그것이 외국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놓치고 가도 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다.

마지막,

뉴스를 보다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fungjai.com이라는 음원스트리밍 사이트가 있다. 2015년에 출시되어 최근 각광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뮤지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이와 비슷한 논조의 기사는 위의 링크를 따라가면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이 스트리밍서비스는 무료이다. 이것이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한국에서 스트리밍의 비용이 너무 싼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들었다. 과연 이것은 기회일까,



<p>정책 및 소식</p>	<p>Khao San spirits dampened 외</p>
<p>관련링크</p>	<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2UU5c79AKJg&amp;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2UU5c79AKJg&amp;feature=youtu.be</a>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asia/891576/human-vs-machine-go-showdown-kicks-off-in-seoul">http://www.bangkokpost.com/news/asia/891576/human-vs-machine-go-showdown-kicks-off-in-seoul</a>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064500076.HTML?input=1179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064500076.HTML?input=1179m</a>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909824/pm-firms-up-high-speed-rail-project">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909824/pm-firms-up-high-speed-rail-project</a>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909536/khao-san-spirits-dampened">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909536/khao-san-spirits-dampened</a>  <a href="http://kyominthai.com/article/2016/03/05/3%EC%9B%94-4%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http://kyominthai.com/article/2016/03/05/3%EC%9B%94-4%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a> </p>

지난 설날잔치(2월5일)에 태국의 모노티비라는 곳에서 취재를 나왔더랬다. 이 사람들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일까, 이후에 후속 취재를 또 나왔었다. 그리고 문화원 1층 로비에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인터뷰를 한참을 했다. 그리고는 방송이 3월초에 되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시간에 공중파를 탔다고 하는데, 정말 모두가 꿈나라로 가 있을 시간이다. 그 방송의 유튜브 링크를 위에 걸어두었다. 이거, 참, 한국말이 여과 없이 방송에 나가서는 한국사람에게 소개하기에는 좀 무안스럽다. 그래도 리포터 총각은 참 잘생겼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한국에 안긴 충격은 어느 나라보다 컸겠지만, 태국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현지 언론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

만, 이에 대한 관심은 어느 국가나 다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형편과는 관계없이 말이다. 태국의 경제력 비하는 아니다.

태국 내에서는, 철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태국의 철도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각국의 이권문제로 지리멸렬한 진행이 되다가, 타결이 된 것이다. 중국의 개입정도와 차관문제 그리고 철도건설노동자들의 국적문제 등이 이슈가 되었다고 한다. 이 철도는 중국 국내에서 출발하여 라오스를 경유 그리고 방콕까지 오는 노선이다. 태국에는 2개의 노선이 건설된다고 한다. 이 철도가 완성되면, 방콕에서 중국 국내로 통하는 기차가 생기게 된다. 이 열차가 북한까지 연결된다면 수십 년 안에 한국까지 연결되는 상상을 해보았다. 물론 우리의 선결과제는 통일이겠지만... 기차타고 방콕에 올 수 있다면 참 신기할 것 같다.

송크란 물 자제 당부. 태국정부에서 올해 송크란에서는 물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이는 가뭄으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데, 20년 사이의 최악의 가뭄이라고 한다. 송크란은 물을 서로에게 뿌리면서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태국의 최대명절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켜보도록 하자. 기대된다.

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다. 투표를 무사히 끝내고, 내 표가 한국에 잘 도착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4월 13일까지 잘 있다가 개표소에서 나의 권리가 실현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한국이 20대 총선의 격랑 속에 있다면, 그에 반해 태국 총선거는 연기되었다. 2014년 정권을 잡은 빠라웃총리가 상원은 임명제로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위 링크 종교민잡지 참조) 내년예 예정되었던 태국의 총선거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봐진다. 빠총리는 민선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 선거 후에 정치가 불안에 빠질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현재 새로운 헌법을 제정 중에 있고, 그 헌법 아래에서 치러지게 될 첫 번째 총선거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부가 잡고 있는 정권과 절대신뢰의 국왕은 이 나라를 어떻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걸까. 외국인인 내가 괜한 걱정이다.

한국문화캐러반 사전답사 출장,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문화캐러반 사전답사를 다녀왔다. 이 행사는 올 6월에 예정되어 있고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했다. 태국의 다른 지역들에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캐러반은 태국의 곳곳을 돌았다. 지난해 10월에 치앙마이에서 큰 규모의 행사를 함께 진행한바 있다. 올해 캐러반은 방콕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들을 선정하고 이 곳의 고등학교를 돌아볼 예정이다. 선정지역은 깐짜나부리, 수판부리, 폐차부리이다. 공립고등학교로 구성된 이번 일정에서 방문한 학교들은 모두 한국의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였다. 대학캠퍼스라고 해도 될 정도였으니 말이다. 내부 시설은 노후되고 계절의 변화가 없어 어떤 흐름의 단절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정감은 있었다. 아래 몇장의 사진으로 그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자. 그리고 방콕에서의 8개월즈음의 시간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산의 존재였는데, 깐짜나부리엔 산이 있었다. 오랜만에 본 산은 참으로 반가웠다.





간짜나부리, 위는 학교 내부. 아래는 인근 리조트



수판부리, 맨 좌측은 학교 운동장, 그리고 인근 민박집, 오리 두 마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펏차부리, 학교 내부. 학교마다 저런 등나무벤치는 다 있다. 학교에서 보이는 뒷동산. 실제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사전답사를 함께 다녀오고 사전세팅을 함께 준비 중에 있다.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및 소식	<b>Water fight with elephants in Ayutthaya 외</b>
관련링크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special-reports/934961/still-songkran-crazy">http://www.bangkokpost.com/news/special-reports/934961/still-songkran-crazy</a> <a href="http://www.bangkokpost.com/vdo/thailand/930925/water-fight-with-elephants-in-ayutthaya">http://www.bangkokpost.com/vdo/thailand/930925/water-fight-with-elephants-in-ayutthaya</a> <a href="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social-and-lifestyle/932033/the-quest-for-a-sustainable-songkran">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social-and-lifestyle/932033/the-quest-for-a-sustainable-songkran</a> <a href="http://bk.asia-city.com/restaurants/article/bangkok-best-cafes-coffee-shops">http://bk.asia-city.com/restaurants/article/bangkok-best-cafes-coffee-shops</a> <a href="http://bk.asia-city.com/events/news/pay-tribute-prince-tonight-soulbar">http://bk.asia-city.com/events/news/pay-tribute-prince-tonight-soulbar</a> <a href="http://bk.asia-city.com/city-living/news/bangkok-musicians-bands-and-party-organizers-share-their-favorite-prince-songs">http://bk.asia-city.com/city-living/news/bangkok-musicians-bands-and-party-organizers-share-their-favorite-prince-songs</a>



(사진,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방콕, 방콕 실롬, 방콕 카오산1,2)

태국의 가장 뜨거운 시절, 4월이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더위를 만나고 있다. 정말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이다. 이 시기엔 에어컨 이외에는 답이 없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 이 기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불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태국에는 현재 2559년, 이 나라의 Lunar New Year는 역시 불력이다. 4월 13일, 송크란이다. 해피뉴이어. 민족의 명절이다.

문화원의 직원들은 송크란 연휴 수목금 이전인 월,화에도 휴가를 쓰고 전주 금요일 저녁 대부분 귀향했다. 10만명이 방콕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방콕에 남은 것은 일부 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이다. 이 시기 방콕의 날씨는 레알 어메이징이다. 에어컨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면 숨을 어떻게 쉴까싶은 생각이 들고, 아침이 되면 올라가는 방의 온도가 기상을 부추긴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겹쳐져서 축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물축제는 외국인관광객들의 심심함을 달래고(많은 상점들이 문을 일찍 닫거나 열지 않는다), 더위를 해소하는 방안인 것이다. 태국에 관심을 가진 이래로 수많은 송크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송크란을 가져와서 부산에서 몇의 물축제가 생겨났다 사라지기도 하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송크란을 맞아 물축제가 진행되는 실롬지역과 카오산지역에 다녀왔다. 3일 내내 이어지는 물축제에 신나는 것은 외국인이 대부분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물총으로 서로를 겨누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처럼 보이진 않는다. 애니웨이, 송크란에 맞추어서 태국을 찾을만큼 송크란은 재미있지 않다는 것. 물론 물과 더위를 좋아한다면 한번 정도 경험해보시라 추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던 중, 긴 연휴에 간짜나부리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태국 사람들이 말하는 좀 더 송크란스러운 물 축제를 볼 수 있었다. 물총이 난무한 방콕과는 달리 바가지, 호스 등이 좀 더 많이 사용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뿌리는 애초의 태국에서 시작한 그것과 좀 더 흡사한 것이다.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물을 맞으면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 한해의 복을 빌어주는 행위이니 일단 참기로 한다.(아래 간짜나부리 시내에서의 송크란 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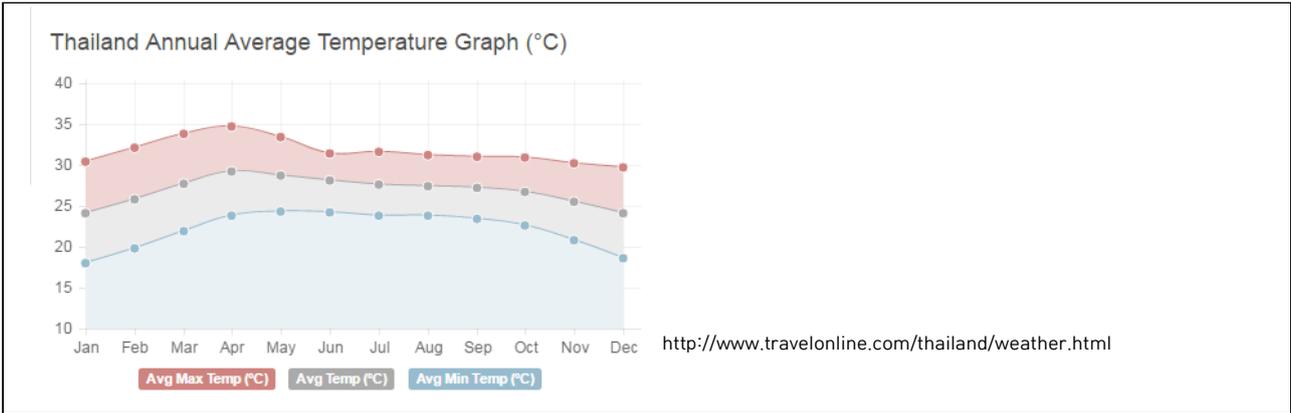




어느 순간의 태국은 한국과 비슷한 발전의 속도를 가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순간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한국의 과거를 살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사월의 긴 연휴 동안 겪었던 창문이 열리는 기차가 그랬다. 40도에 달하는 더위에 정오를 넘어가는 별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틀어주지 않는 기차 안에서 더 이상은 머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세 시간이 남았음에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태국의 발전이 아직 기대한만큼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아마 더 이상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좀 더 귀한 시간으로 남아있기를 바래본다.



벌써 트리뷰트 공연이 벌어진 방콕이다. 안녕, 프린스. 데이빗보위 사망 때에도 비슷했지만, 한국보다 이러한 음악계의 뉴스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태국이다. 태국의 음악은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지 않는데, 이 팬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들이 쏟아내는 반응에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 4월은 태국의 가장 더운 날이면서도, 긴 휴일도 포함되어 있는 달이다. 그런데 연초도 연말도 아니고 북반구 대부분의 나라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는 여름도 아닌 동남아만이 뜨거운 이 시간에 입국관광객 대비 출국관광객이 많아지는 듯하다. 이렇게 내국인들이 많이 떠나는 시기에 도시 안에서의 행사들은 눈에 띄게 현저히 줄어들었다. 매일 공연을 하던 클럽들도 주 2-3회만 진행하고 있고, 늘상 열리던 주말의 수많은 기획공연들도 눈에 띄지 않는다. 결론은 태국의 비수기이다. 송크란이라는 거대한 축제가 진행되는 이전, 이후의 시기들이기 때문 일테고, 사람들이 도심을 비우는 시기 때문이기도 할 터이고, 더위 때문이기도 할 터이다. 어찌되었든, 태국의 뜨거움은 좀 견디기 힘들다. 아마도 한국에서 보내게 될 올 여름은 다른 해보다 좀 더 시원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b>정책 및 소식</b>	<b>Leicester takes victory lap to Bangkok 외</b>
<b>관련링크</b>	<a href="http://www.bangkokpost.com/vdo/thailand/979789/leicester-takes-victory-lap-to-bangkok">http://www.bangkokpost.com/vdo/thailand/979789/leicester-takes-victory-lap-to-bangkok</a> <a href="http://www.nationmultimedia.com/travel/Destination-Culture-30286649.html">http://www.nationmultimedia.com/travel/Destination-Culture-30286649.html</a> <a href="http://bangkok.coconuts.co/2016/05/23/wet-days-ahead-thailand-officially-enters-rainy-season">http://bangkok.coconuts.co/2016/05/23/wet-days-ahead-thailand-officially-enters-rainy-season</a> <a href="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986845/academic-caught-in-coal-crossfire">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986845/academic-caught-in-coal-crossfire</a> <a href="http://www.nationmultimedia.com/life/Flying-high-with-GOT7-30286363.html">http://www.nationmultimedia.com/life/Flying-high-with-GOT7-30286363.html</a>
<p>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방콕을 방문했다. 리그 우승한 것이 지난 5월초인데, 방콕 방문이 5월 중순 우승 기분을 잠시 내고 방콕에 왔다고 보면 되겠다. 이유인즉슨, 그들의 메인스폰서가 킹파워면세점이기 때문이다. 킹파워면세점은 태국에서 가장 큰 면세점으로 레스터의 유니폼 앞면 한가운데 큼직하게 박혀 있는 업체이다. 축구사랑이 유난한 태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을 배출한 킹파워면세점은 그만큼 홍보 효과를 누렸겠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빛나지 않던 팀의 우승으로 킹파워면세점의 위상도 조금 올라갔겠지,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프로의 세계에서 단지 메인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우승 직후 태국을 찾은 그들은 그래도 행복했겠지, 그래도 돈이 뭐라고, 거기서 여기까지 축하를 받으러 왔을까, 스폰서를 놓칠 수 없는 구단이나, 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선수, 코치진이나, 진짜 돈이 뭐라고,,</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복잡한 태국의 정계, 선거를 하느니 마느니,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로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의원을 지명을 하겠다느니,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발전소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앞뒤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여력이 내게는 없어, 단지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추측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옆 자리의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전부이다. 화력발전소의 유치를 두고 논쟁이 있다는데, 송클라대학에서 이 발전소의 유치를 주도했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저지하는 모양새인 것 같다. 아직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에 하나 놀랐고, 대학이 이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리고 이를 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또 놀랐다. 정확한 맥락 파악 없이 놀래기만 한 상황이라,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뿐만은 아니겠지. 어쨌든 태국의 정계가 지금은 난관을 무사히 넘어서 총선거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치러낼 수 있기를, 그리고 민주정권이 들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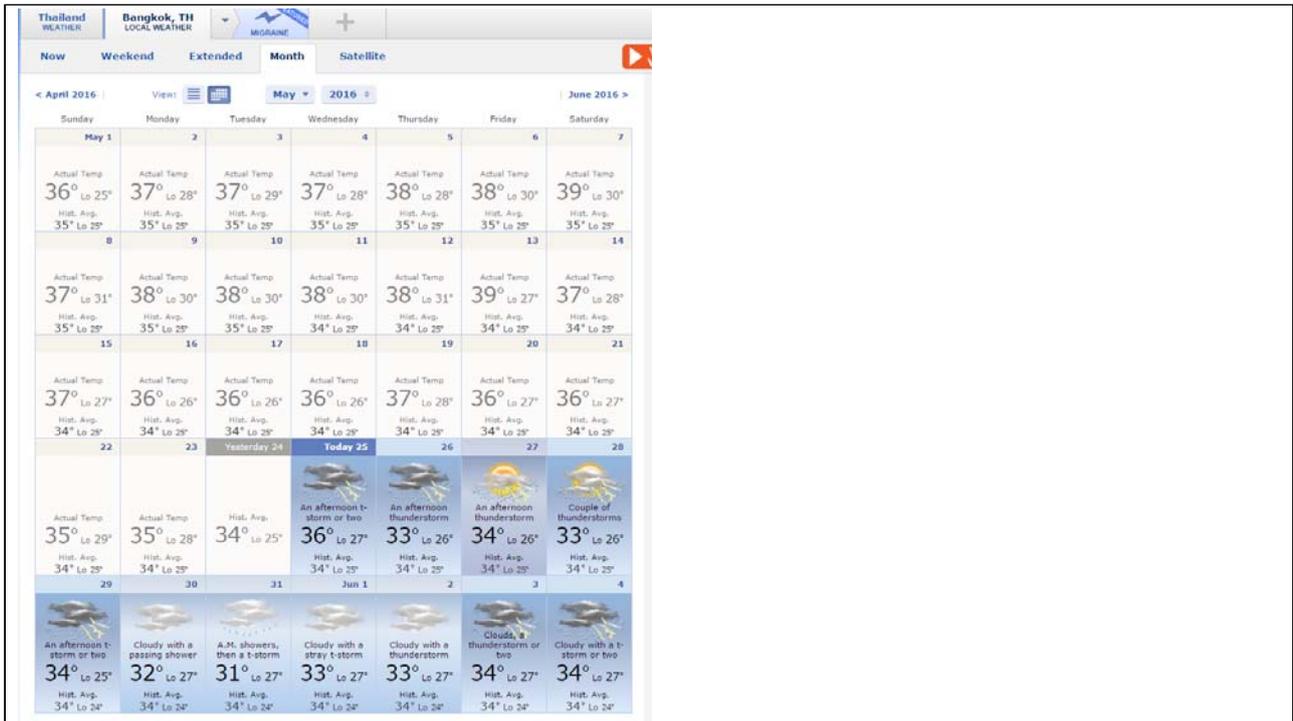


끄라비의 행사 소식이 실렸다. 한국의 참여가 있다는 이야기에 뭔가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을까했지만,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네. 태국어로 되어있나보다. 태국의 가장 아름답고 한적하고 조용한 도시라 생각되는 끄라비의 축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Andaman Art Festival, The Andaman Cultural Centre 이 곳에서 하는 행사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자, 이 축제이던 끄라비이던.



갓세븐이다. 이 친구들이 나에게 조금 특별한 이유는 문화원 2층의 거대 유리창에 이 친구들이 내가 파견을 나와있던 기간 내내 걸려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태국에 와서 알게 된 친구들이지만 문화원 2층 벽면에 걸릴만큼 유명하긴하다 생각했었다. 그러다 최근에 뱀뱀(갓세븐 멤버, 태국사람)이 대중교통 속에서 나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내가 이 친구를 알아보기 시작했었나 싶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 시점부터 좀 더 유명해졌겠지. 그러다 최근 엠디스트리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엄청난 개런티를 받고 왔겠지. 태국에서 한국아이돌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긴 하지만 책임감이라곤 눈에 띄지 않아 걱정이야. 애니웨이, 방콕에서 종이접기로 갓세븐과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니, 반갑긴 하다.





태국 더위의 피크는 3월 말에서 5월초까지 송크란을 정점으로 앞뒤로 20여일이다. 그렇게 무덥던 어느 날 한바구니의 소나기를 기점으로 체감온도가 쑥 내려갔다. 사십도를 안방 드나들 듯이 오가던 체감온도가 그래도 삼십도 중반에 머물러있다.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올 여름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름 같지 않은 여름으로, 일년동안 이어진 여름의 연장선상에서 지나가지 않을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기다린다.

십개월의 짧은 파견이 끝난다. 역시 시간이란 돌아보면 하나로 뭉쳐진 듯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앞으로 보면 시야가 흐려 막막해지기만 하는 것인가 보다. 애초 지원 당시 하고자 한바는 대부분 달성했다고 자평할 수 있고, 해외에서의 근무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얻었다.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나는 변화할 테지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겠다. 방콕에서의 시간의 결과 한국에서의 시간의 결은 너무 다르기에, 아마도 하나의 세계를 건너온 기분이 들지 않을까, 아무쪼록 이 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다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리자,

[공간]

공간명	The Jam Factory		
유형	복합문화공간	장르	서점/갤러리
<p>마당을 가진 서점 겸 갤러리. 마당에서 낮시간을 활용한 공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복합문화공간으로 공동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할 듯함.</p> <p>www.facebook.com/TheJamFactoryBangkok</p>			

공간명	Imagine's House Cafe		
유형	식당/공연	장르	대중음악
<p>주소 : 280 M. 9 T.Nonghan A. Sansai Chiangmai 50290</p> <p>전화번호 : 052022462</p> <p>웹 : <a href="http://www.facebook.com/imagineshouse">www.facebook.com/imagineshouse</a></p> <p>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에 위치한 카페 겸 공연장이다. 치앙마이 로컬 뮤지션인 boy imagine이 운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카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로컬뮤지션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자, 빈번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클럽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지역음악씬을 받칠 수 있는 기동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로컬씬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유일 것이다.</p> <p>이번 치앙마이 출장을 통해서 다녀올 예정이다. 이 답사로부터 치앙마이 로컬씬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고, 방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다른지 등의 답사가 될 것이다.</p>			

공간명	ZudRangMa Records		
유형	Vinyl shop	장르	대중음악
<p>Records Store Address : 7/1 Sukhumvit 51 Wattana, Bangkok 10110</p> <p><a href="https://www.facebook.com/zudrangmarecordsthailand/?fref=ts">https://www.facebook.com/zudrangmarecordsthailand/?fref=ts</a></p> <p><a href="http://www.zudrangmarecords.com">http://www.zudrangmarecords.com</a></p> <p>info@zudrangmarecords.com</p> <p>레이블이자 레코드가게. 웹으로 음반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었고, 바이닐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예전 음반들도 많았다. 산울림의 바이닐을 발견하고 반가웠다. 자체 레이블에서 제작한 다양한 음반들도 꽂혀 있어 음반제작과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음반사임을 알았다. 통러의 WTF 바로 옆집이다.</p>			



공간명	Studio Lam		
유형	라이브클럽	장르	음악
<p><a href="https://www.facebook.com/studiolambangkok">https://www.facebook.com/studiolambangkok</a>            주소 Sukhumvit soi 51, BKK 10110            영업시간 화-일 저녁 6시-새벽2시            전화번호 02 261 6661            이메일 studiolambangkok@gmail.com</p> <p>Studio Lam is born with the aim of providing a home for creative new music that exists outside of the mainstream.</p> <p>통러에 위치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라이브클럽, 덩이나 래게쪽의 음악들이 많고 바로 옆에 위치한 주드랑마레코드/레이블의 공연장 역할을 하고 있다. 레이블 하나로 앨범작업을 해서, 앨범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그 옆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해 둔 것이 놀랍다.</p>			

공간명	Rock Pub		
유형	라이브클럽	장르	음악
<p><a href="https://www.facebook.com/therockpub/?fref=ts">https://www.facebook.com/therockpub/?fref=ts</a>  <a href="http://www.therockpub-bangkok.com/">http://www.therockpub-bangkok.com/</a></p> <p>주소 93/26-28 Hollywood Street Building, Payathai Rd., Ratchathewi, BKK 10400            (SkyTrain (BTS): Get off at Ratchathevi Station, Exit 2)            영업시간 월-목 7pm-1am 금-토 7pm-2am            전화번호 099-191-5666</p> <p><a href="mailto:info@therockpub-bangkok.com">info@therockpub-bangkok.com</a></p>			

Bangkok's original Rock bar / live house / venue since 1987

얼터너티브를 중심으로 공연을 하고,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방콕의 라이브클럽 중 하나. 매일 공연을 진행하면서 꾸준한 라이브로 주목받음. 주변 일대 모두가 비슷한 공간들로 채워져 있다고 함.

공간명	Maggie Choo's		
유형	라이브클럽	장르	재즈 등

<https://www.facebook.com/maggiechoos>



매기추 사장과 티본은 친하단다. 그래서 1년 1-2회씩 공연을 이곳에서 풀밴드로 진행을 한다. 그 공연이 이번 주 주말이다. 방콕의 대부분의 공연장이 팝의 역할 속에서 공연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 이 곳은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공연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그래서 좀 더 고가의 입장료가 책정되고, 술을 판매하는 것보다 공연에 시선을 두는 관객들이 많다. 많은 공연들이 BGM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곳이 많다. 아쉽게도.



공간명	Reading Room		
유형	대안공간	장르	인문학/서브컬처?

주소: 2 Silom soi 19 BKK Thailand

전화번호: 02-635-3674

웹: [www.readingroombkk.org](http://www.readingroombkk.org) [www.facebook.com/thereadingroombkk](http://www.facebook.com/thereadingroombkk)



방콕에서 손에 꼽히게 유명한 대안공간이다. 태국 첫 방문에서 이미 그 곳을 찾기 위해 실름의 여러 소이를 돌아다니며 어떻게 이 곳을 찾을까 고민을 했었고, 그 시간은 이미 4년 전이다. 아직도 무사히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 놀랍고 대견한 마음이다. 리딩룸에 평상시에 방문한다면 정말 책을 읽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다. 평상의 분위기는 아무 곳이나 널브러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외엔 누구도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그러나 몇 차례 행사시에 방문을 하면 그 분위기는 극과 극의 양태를 나타낸다. 최근 재미있는 행사를 하길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리서치트립과 일정이 겹쳐 가보질 못했는데, 치앙마이에서 만나고 싶었던 CAC의 운영자 중 한명이 이곳에서 행사를 해서 현지에서 만나지 못했다. 전국의 네트워크를 가진 촘촘하고 단단한 조직이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덤으로 들으면서 리딩룸은 조만간은 달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Stone Free Music Festival		
유형	축제	장르	음악(인디)
12월 BMMF에 맞서는 인디뮤직 축제. 그 어떤 펀딩도 받지 않고 입장수입만으로 진행되는 인디페스티벌. 자연을 컨셉으로 무대를 쌓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축제를 진행. 방콕과 좀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나, 매년 성황을 이룬다고 기획자가 전함. <a href="http://www.facebook.com/StoneFreeMusicFestival">www.facebook.com/StoneFreeMusicFestival</a>			

축제/행사명	Bangkok International Typographic Symposium		
유형	축제(컨퍼런스)	장르	타이포그래피
일시 : 2015년 10월 30일 - 11월 1일 장소 : TCDC(Thailand Creative Design Center), BACC(Bangkok Art & Culture Center) 홈페이지 : <a href="http://www.bitsmm.org">www.bitsmm.org</a> 주최 : Typographic Association of Bangkok 매년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타이포그래피 관련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방콕에서 행해지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석금호대표가 초대되어 한국문화원에서 섭외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문화원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타이포그래피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이 심포지움은 전세계의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이나 워크샵을 진행하지만, 입장료가 비싼 것이 흠이다.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적인 추세가 Latin과 non-Lati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글을 쓰는 우리는 보기 좋은 타이포그래피와 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축제/행사명	Cat Expo		
유형	축제	장르	음악
일시 : 2015년 11월 14-15일 장소 : 원더월드 홈페이지 : <a href="http://www.thisiscat.com">www.thisiscat.com</a> / <a href="https://www.facebook.com/events/702837643184061/">https://www.facebook.com/events/702837643184061/</a> 주최 : Cat Radio 참고 : <a href="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music/761284/still-indie">http://www.bangkokpost.com/lifestyle/music/761284/still-indie</a> Fat Festival에서 Cat Expo까지. 14년 전 시작한 Fat Festival이 이름을 바꾸어 캣엑스포로 진행 중이다. 이틀 동안 이만명이 넘는 관객들이 다녀가는 방콕인디씬의 가장 큰 축제가 되었다. 인디음악리스너들의 공식적인 첫모임이 이 축제였다고 한다. 14개의 스테이지가 진행되고, 음반을 팔고, 영화상영과 독립출판사와 잡지들의 홍보부스가 차려졌었다. 방콕에서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출연하고, 행사 전후의 그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캣엑스포는 점점 더 커지는 행사로 진행될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을 고수하는 사실으로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훌륭한 축제이다. 한태우호문화축제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울 뿐이다.			



축제/행사명 유형	Common fest 3		
	복합축제	장르	전시/공연

쫄라롱컨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축제이다. 공연, 전시,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하루만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알차고 생기발랄함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지금 한국의 대학 축제들을 가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형태가 아닌 누구를 무대에 세우느냐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이 곳은 단과대학의 작은 축제에서 그러한 느낌보다는 소박하지만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https://www.facebook.com/events/1515852715395046/>

<b>축제/행사명</b>	<b>Area Five Bangkok Art &amp; Market fair 2015</b>		
<b>유형</b>	<b>복합축제</b>	<b>장르</b>	<b>아트마켓/전시/공연</b>

연말을 맞이해 2주의 주말에 걸친 6일간의 아트마켓행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주에 방문한 이곳은 사전 홍보에 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는 듯 했고, 관람객의 숫자도 현저히 적은 모습이었다. 무대공연은 해질 무렵부터 늦은밤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해가 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준비한 것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는 느낌이 계속 되었다. 입장료가 없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서의 좋아요와 팔로우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방콕의 수많은 야외마켓들 중에서 그리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곳이다.

<https://www.facebook.com/events/149745302044175/>



<b>축제/행사명</b>	<b>Bike for DAD 2015</b>		
<b>유형</b>	<b>이벤트</b>	<b>장르</b>	<b>스포츠</b>

국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이다. 12월 5일이 생일인 국왕은 12월 한달 내내 그 생일기념을 온 나라에서 한다. 각종 행사들과 홍보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세워진 축하꽃말들. 그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이것인데. 12월 11일 금요일, 평일이다,에 방콕을 비롯한 태국 전역의 도시들에서 그리고 태국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 곳곳의 도시들에서 이 행사가 펼쳐진다. 방콕의 경우에는 왕자를 비롯한 왕족들, 그리고 정부관료들, 연예인들까지 모두 자전거를 타면서 이 행사에 참여한다. 교통혼잡의 대명사 방콕의 도로들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그 자전거 행렬을 보기위해 시내 곳곳이 인산인해이다. 한 지점을 통과하는 첫행렬에서 끝행렬까지의 시간이 장장 3시간 남짓. 그리고 이를 보는 사람들과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다. 뭔가 지나가는 자전거들이나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분이었다. 이런 이벤트가 세상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https://www.bikefordad2015.com/>

축제/행사명	Train Night Market		
유형	복합	장르	플리/프리마켓/공연
<p>몇 해 전 창업과 관련한 티비 경쟁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마켓이다. 처음에는 짜뚜 짝에서 시작하여, 이름을 트레인마켓으로 지었다고 한다.(짜뚜짝에는 기차길이 지나간다) 그러다 티비에 나오고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초기 장소의 소유주가 땅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 지금의 시나카린이라는 지역이다. 이곳으로 옮기고도 그 인지도는 멈추지 않게 계속 상승하였고, 지금은 방콕 시내에 2군데 더 트레인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p> <p>이곳 시나카린에 위치한 트레인마켓은 방대한 부지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이 곳에 입점한 가게들이 있는 반면,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넓은 공터가 주말에는 부스가 세워지며 각각의 가게들로 변신을 한다. 넓은 부지에 들어오는 상점들과 연이어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과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연들로 이곳은 주말마다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 것 같다.</p> <p>이번 프롬로컬투아시아 두 번째 팀을 초청하면서 접촉을 하였고, 거리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역시나 공연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곳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p> <p><a href="https://www.facebook.com/taradrodfi.KasetNawamin/">https://www.facebook.com/taradrodfi.KasetNawamin/</a>  <a href="https://www.facebook.com/taradrodfi">https://www.facebook.com/taradrodfi</a></p>			

축제/행사명	beer garden 2015 central world 외		
유형	-	장르	-
<p>방콕의 날씨와 연말이라는 시즌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맥주회사의 프로모션행사이다. 시내 곳곳에서 진행하고, 태국 양대 맥주회사인, 창과 싱하가 경쟁하듯 붙어있다. 단순한 맥주 프로모션 행사라고 하면 그러려니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행사를 공유하는 까닭은, 모든 비어가든에 설치된 스테이지 때문이다. 이 스테이지에는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데, 이 공연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연으로 뮤지션들은 수입을 만들어간다고 한다. 수많은 곳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들이 공연하는 것을 배경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호불호의 판단은 차치하고, 이러한 한국과 태국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p>			
 <p>The image shows promotional materials for the 'Chang Live Park' event. On the left is a green poster with the 'Chang Live Park' logo and a list of artists and dates. On the right is a yellow poster with the Thai text 'อนุสาวรีย์' and a detailed schedule of performance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5, listing dates, days of the week, artists, and performance times.</p>			

<b>축제/행사명</b>	<b>Bukruk festival</b>		
<b>유형</b>	<b>복합축제</b>	<b>장르</b>	<b>전시/공연</b>

<https://www.facebook.com/Bukrukfestival/?fref=ts>  
<https://www.facebook.com/events/1532588643729632/>  
<https://www.bukruk.com>

EU가 참여하는 스트리트아트 축제로, 야왈랏지역의 다양한 야외벽들을 활용하여 작가들의 그래피티작업이 진행되고, 세계각국의 작가들의 워크샵도 함께 병행한다. 또한 스트리트아트의 포럼도 함께 만들어진다. 음악축제 또한 진행되는 복합축제로서의 성격이 짙다. 역시 주목할 점은 스폰서리스트이다. 어떠한 접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리서치가 필요하다.

한국문화원의 경우에도 올해에 이 축제에 스폰서로 참여하였는데, 한국작가의 초빙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스텝으로 일을 하고, 홈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나 단체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게 되면 이 축제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릴 것 같다. EU의 개입이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 할 것이다.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127887324178904578339494094015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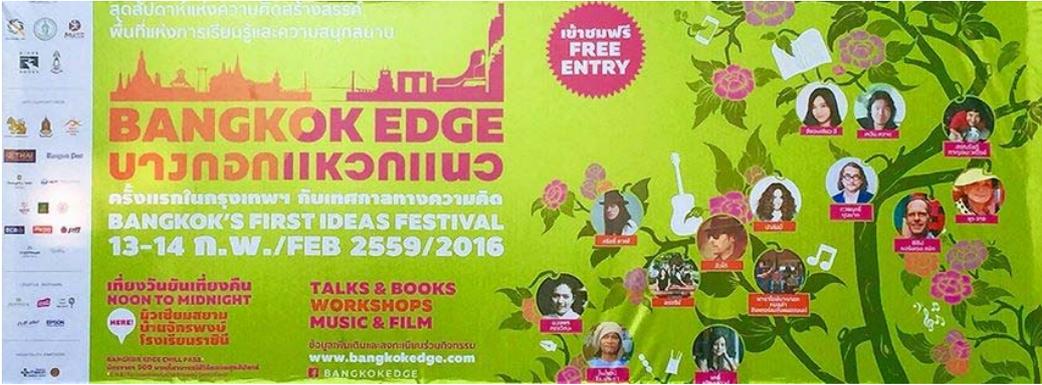


<b>축제/행사명</b>	<b>International Festival of Language &amp; Culture</b>		
<b>유형</b>	<b>축제</b>	<b>장르</b>	<b>복합장르</b>

<http://www.intflc.org>  
<https://www.facebook.com/intflc>

어메이징 거대한 축제인줄 알았지만, 그저 거대한 학예회였다. 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모여서 각자의 장기를 자랑하는 거대한 무대. 그리고 수많은 조명과 음향, 영상, 다양한 나라의 10대들이 모여서, 모인 그 나라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 무대형 발표회는,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상징을 위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의 행사였다. 사전에 진행한 프로그램만으로도 축제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나라의 전통 혹은 민속노래를 꼭 한명씩 나와서 3분 정도의 시간에 부르고 빠지는 이 무대가 필요했던 것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uoNU9WJN\\_PE](https://www.youtube.com/watch?v=uoNU9WJN_PE)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축제/행사명	The Japanese film festival 2016 - Shapes of Love		
유형	축제	장르	영화
<a href="https://www.facebook.com/jfbangkok">https://www.facebook.com/jfbangkok</a> 재팬파운데이션의 경우, 확실히 우리나라의 문화외교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던져준다. 물론 그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현지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크다고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다. 최근 있었던 재팬엑스포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 영화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지에 대한 고려가 크다는 점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현재 한국의 문화외교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로 이 영화제의 개막작상영 전에 GV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일본에서 온 분은 개봉작의 제작사 관계자인 듯 했다. 사회는 태국분이었고, 개봉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마지막에 일본 제작자의 말은 태국의 영화들이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 혹은 선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국민성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 없겠지만, 재팬파운데이션의 기존일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무튼, 어쨌든 일본의 행사들에서는 태국의 냄새가 난다. 한국의 행사들에서는 한국 냄새만 진동을 하지만 말이다.			

축제/행사명	BANGKOK's First Idea FESTIVAL 2016, Bangkok Edge		
유형	축제	장르	복합
<a href="https://www.facebook.com/events/453141571540512/">https://www.facebook.com/events/453141571540512/</a> <a href="https://www.facebook.com/bangkokedge">https://www.facebook.com/bangkokedge</a> <a href="http://www.bangkokedge.com/">http://www.bangkokedge.com/</a>			
			
다양한 프로그램이 몇 개의 공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축제이다.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은 지역이라 그것이 안타깝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겠다.			

축제/행사명	Neo Fest Market		
유형	마켓	장르	복합
<a href="https://www.facebook.com/neonfestbkk">https://www.facebook.com/neonfestbkk</a> 방콕에서 아트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정도 그 형태나 운영방식이 추정이 된다. 그러던 중에 또 하나			

새로운 마켓이 생겼다. 아트박스의 뒤를 이은 컨테이너박스형 마켓이다. 아트박스가 방콕의 아트마켓 중에는 꽤나 자주하고,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비슷한 형식의 이 마켓은 롬피니공원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우기가 찾아오기 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공연이 매주 진행된다. 이러한 공연이 지역의 뮤지션들에게는 좋은 아르바이트가 된다고 그랬다. 한번 놀러가 볼지어다.



축제/행사명	1600 pandas coming to BKK		
유형	전시	장르	환경

<https://www.facebook.com/wwfthailand/>  
<http://www.wwf.or.th/en/>

프랑스 예술가 Paulo Grageon의 작품 팬더가,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콕 시내 싸남루앙, 센트럴월드, 총논씨 스카이워크, BACC, 롬피니공원 등에서 전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센트럴엠바시가 메인 전시장소이다. 이는 사라지는 팬더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환경단체인 wwf에서 전세계 투어를 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곰들은 모두 재활용재료로 만들어졌고, 이 곰이 1600마리인 것은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실제 살아있는 팬더곰이 정확히 1600마리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의 이러한 예술로의 홍보는 좀 더 친근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세계투어에 태국, 방콕은 빠지지 않고 모두가 들리는 도시인 것이다. 지구는 둥근데 왜 한국은 변방이라고 여겨지는 것일까.



홍보도 참 귀엽다. 뭔가 지켜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팬더다.

축제/행사명	Bangkok Comic Con 2016		
유형	박람회	장르	만화, 애니

<http://www.bangkokcomiccon.com/>

2016.4.29.-5.1 @ 바이텍방나



만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한 박람회, 태국에서는 아직 만화의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코스튬플레이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배경 덕분인지, 많은 곳에서 태국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웹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네이버웹툰도 진출하여 시장의 선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기회에 한국의 웹툰이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청춘, 연애물은 태국 여성들의 취향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으니 말이다.

축제/행사명	Sunset Beach music fest		
유형	축제	장르	스카래게

[www.facebook.com/Sunsetbeachmusicfest](http://www.facebook.com/Sunsetbeachmusicfest)

2016.2.20. @ ban amphur beach sattahip / 티켓은 900바트(프로모션 500바트)

이름도 비슷하게, 후쿠오카 선셋라이브와 분위기가 매우 비슷하다. 해변을 끼고 래게를 중심으로 한 음악으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이 축제에는 태국의 많은 스카래게팀들이 거의 대부분 출연하여 무대를 선보였다. 사타힙은 방콕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엄연히 반도국가인 태국에서 비치를 끼고 하는 축제는 처음 접했다. 또한 장르를 중심에 놓고 진행하는 축제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흥행의 가능성이 높은 편임을 알겠다.





<b>축제/행사명</b>	<b>Kolour in the park</b>		
<b>유형</b>	<b>축제</b>	<b>장르</b>	<b>음악</b>

<http://www.kolourinthepark.com/>

2016.3.12.-13 @ THAI Wake Park

방콕이긴하나, 시내에서 가기엔 꽤나 먼 곳에 있는 수상레저를 위한 공원이다. 공원의 홈페이지만 가 보아도 현지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물씬 풍긴다. 이 축제는 테크노를 전면에 내세운 축제이고, 음악만이 아닌 다양한 액티비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세팅되었다. 역시 공간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서양인이 매우 많아 보인다. 2일권 입장료가 1650바트이고, 프로모션을 몇차례 진행을 했었다. 싱하그룹이 메인스폰서로서 자리해있다. 이 곳은 태국 내에 머물고 있는 서양인들을 위한 축제가 아닐까싶다. 많은 영어 무료잡지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웹페이지들은 이러한 축제와 방콕에 거주중인 서양인들을 메인타겟으로 하고 있다.



<b>축제/행사명</b>	<b>Nimman street music festival</b>		
<b>유형</b>	<b>축제</b>	<b>장르</b>	<b>음악</b>

[www.facebook.com/NimmanStreetMusicFestival](http://www.facebook.com/NimmanStreetMusicFestival)

2013년 12월까지의 진행한 듯하나, 이후에는 진행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곳은 치앙마이 메인 스트리트(리서치보고서에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 곳곳에서 음악축제를 벌이고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사진으로 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보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NAP(공예디자인축제)가 진행되고, 주변이 매우 시끄러워서 곳곳에서의 공연은 힘들 수도 있었겠다 싶다.

님만해민로드에 차량이 통제되고(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보이지만, 치앙마이 시내의 핵심도로 중 하나니까) 그리고 볼륨이 매우 높은 주변의 펍들의 음악소리를 조금 줄인 후에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다. 님만해민의 많은 사람들이 유유자적 즐길 수 있지 않을까.



<b>축제/행사명</b>	<b>Bangkok Street Show</b>		
<b>유형</b>	<b>축제</b>	<b>장르</b>	<b>스트리트아트</b>

<http://www.bangkokstreetshow.com/>  
[www.facebook.com/bangkokstreetshow](http://www.facebook.com/bangkokstreetshow)

2015.12.4.-6 @롬피니공원

방콕 시내의 가장 큰 공원인 롬피니파크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의 다양한 공연들. 마술, 마임, 저글링,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거리예술을 롬피니공원의 넓은 공간에서 펼치는 축제이다. 무료이고, 낮부터 밤까지 진행한다. 과천축제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정보가 축제가 진행된 시기보다 늦게 내게 도달했다는 점이다. 못 보았다.



<b>축제/행사명</b>	<b>Mohawk fest #1</b>		
<b>유형</b>	<b>축제</b>	<b>장르</b>	<b>음악</b>

[www.facebook.com/mohawkfest2016](http://www.facebook.com/mohawkfest2016)

일시 2016년 2월 26-27일 @반매나이 매림, 티켓 1일 200바트

치앙마이에서 진행하는 축제. 펑크락을 중심에 두고 진행한다. 피그아트앤뮤직페스티벌의 디렉터인 골프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무대였다. 독립기획자인 골프는 이러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몇 번 방콕을 다녀갔었고, 몇몇 군데에서 스폰을 받았다. 그리고 이 축제가 진행되었는데, 이 스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몇몇 독립기획자들이 진행하는 축제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허허벌판에서 빈약한 장비들과 스테이지에 농촌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을 하는데, 사전 홍보에서 받았던 인상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주는 축제들이다.

그래도 치앙마이에서 이러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대

단하기도 하면서 한국에서 꼭 활동해온 내가 보기엔 뭔가 어설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



◀ 축제의 스폰서들

축제/행사명 유형	Craft Beer Rock		
	축제	장르	음악

[www.facebook.com/craftbeerrock](http://www.facebook.com/craftbeerrock)

2016년 4월 1일 @수쿰빗26 락아카데미, 세 번째 공연이 진행. 무료입장.

Rock music with Heavy Beer,

락아카데미는 꾸준히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 이 공연은 맥주와 함께 하는 시리즈 공연인가보다 이번 공연에 가볼 예정이다. 수제맥주와 과연 어떠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자.



[인물]

<b>인물명</b>	Token Teekanun	<b>소속</b>	the world may never know
<b>장르</b>	다원(기획)	<b>연락처</b>	tum.mayknow@gmail.com

앞서 언급한 위메이네버노우의 대표이자, 스톤프리뮤직페스티벌의 기획자. 사진/영상작가로 시작하고, 디자인작업을 병행하여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자신의 작업물을 아카이빙 해놓은 홈페이지가 인상적임. www.tokinteekanun.com

<b>인물명</b>	Ms. Laila	<b>소속</b>	BACC arts network officer
<b>장르</b>	코디네이터	<b>연락처</b>	081-572-7373 laila.b@bacc.or.th

웹 : [www.bacc.or.th](http://www.bacc.or.th)

방콕아트앤컬처센터인 BACC의 코디네이터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의 공동주최를 의뢰하기 위해 방문하여 만남을 가졌다. BACC는 방콕시에서 조성한 곳으로 전시를 위한 공간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외의 공간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연중 진행되고 있어서, 방콕문화예술과 관련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BACC의 위치와 활용도가 높으므로, 방콕에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BACC의 메인 프로그램은 전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음악이나 인디문화, 서브컬처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구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b>인물명</b>	Phum	<b>소속</b>	Rats Records
<b>장르</b>	뮤지션	<b>연락처</b>	089-891-6309

웹 : <https://www.facebook.com/PhumViphurit/>



12월에 진행하는 From Local To ASIA의 태국 뮤지션이다. 어느 공연에서 우연히 보게 된 그의 무대는 풋풋한 느낌이 물씬 들어 섭외를 하게 되었다. 젊고 귀여운 뮤지션이다. 공연 중 멘트를 영어로 하는 수준급 영어의 소유자이자, 풀밴드와 어쿠스틱이 동시에 가능한 뮤지션이다. 단 흠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개런티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uhuNs8xjIY> 뮤직 비디오 감상을 권한다.

<b>인물명</b>	<b>Srirajah Rockers</b>	<b>소속</b>	<b>Hualampong Riddim</b>
<b>장르</b>	<b>레게, 덩</b>	<b>연락처</b>	<b>-</b>

<https://www.facebook.com/Srirajah-Rockers-18006796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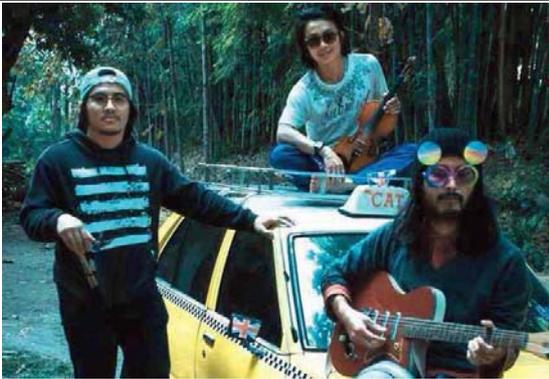
레게 덩 장르 방콕의 최고 인기밴드, 한국의 밴드 윈디시티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음반이 출시된 적이 있어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있다.

**멤버구성**

- BUBU#(Win Chujitarom) : Drums / Vox
- 84NK(Tanakarn Mokkahasmita) : Guitar / Chorus / Echoes
- YIN+(Nra Janephraphaphan) : Bass
- BALL(Chanat Isarangkul Ayudthaya) : Keyboard / Chorus / Organ / Synth / Melodian



<b>인물명</b>	<b>Ugly Mountain</b>	<b>소속</b>	<b>-</b>
<b>장르</b>	<b>사이키델릭</b>	<b>연락처</b>	<b>095-687-9929</b>



<https://www.facebook.com/uglymountain>

멤버 : Mahasmut Bunyarakh, Tasasin Indhaphan, Panupong Chareanrat  
 Based in Chiangmai, Thailand. Ugly Mountain is blending ลานง (Thai Country),  
 Psychedelic and Garage Rock.  
[mahasmut@gmail.com](mailto:mahasmut@gmail.com)

이상적인 사운드를 구사하는 치앙마이팀이다. 즉흥연주가 돋보이고, 가만히 듣다보면 약간 어지럽기도 한 특징이 있다. 세 번째 프롬로컬투아시아에 태국팀으로 초대되어 무대에 서게 된다. 기대가 되는 팀이다. 근래에 방콕에서 벌어지는 많은 축제들에 출연을 하면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특함이 무기일지 방해일지 지켜보도록 하자.

<b>인물명</b>	The Sweet Eyes	<b>소속</b>	SUA KASEM SAGA GING
<b>장르</b>	밴드(스카레게)	<b>연락처</b>	Sweeteyes_2@hotmail.com

<https://www.facebook.com/The-Sweeteyes-214916845509297/timeline>  
[www.youtube.com/channel/UCnggpmGUaRM3dqSdI676SnA](http://www.youtube.com/channel/UCnggpmGUaRM3dqSdI676SnA)

8인조 스카레게 밴드. 치앙마이에서 활동 중임. vocal Song, guitar Champ, Bass Pay, Drum S, Sax Mind, Trb Mos, Trp Aey, Trp Oak 위에서 언급한 모혹페스트에 출연한 것을 보고, 알게 된 팀. 아직 어린 친구들인 것처럼 보이고 지역에서 음악을 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았음. 다음 치앙마이 리서치트립에서 인터뷰를 진행해볼 생각.



<b>인물명</b>	The Super Glasses Ska Ensemble	<b>소속</b>	unsigned
<b>장르</b>	밴드(스카레게)	<b>연락처</b>	0946594998

[www.facebook.com/spgska](http://www.facebook.com/spgska)  
<https://www.youtube.com/watch?v=pSCKibyrOsQ>

10인조 래게재즈밴드. 공연영상을 보다 잘해서는 중요체크. Asanai Asakul(보컬), Warudh Samansap(트럼펫), Parinya Patseethong(트럼펫), Pathadon Jedsadarom (트롬본), Nutthapol Deekum(색소폰), Somsakul Asakul(키보드), Aekkasaem Hnushum(베이스), Jakkrapan Suthatmalee(기타), Chakri Piphatsothorn(퍼커션), Pak-Pakpoom Watwiangcam(드럼) 으로 구성. 기회를 만들어 공연을 보고 방콕추천리스트에 추가할 예정.



인물명	Arnont Ngyo	소속	Chiang Mai Collective
장르	사운드비디오아트, 설치	연락처	084-804-8159

<http://www.arnontnongyao.com/>  
[arnont108@gmail.com](mailto:arnont108@gmail.com)



치앙마이컬렉티브 공동설립자이자 설치작가인 아년. 치앙마이대학교를 나왔고 그 이후 계속해서 치앙마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의 작품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운드와 비디오의 오묘한 조화였고, 체험 혹은 어린이들과의 협업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치앙마이에서 살고 있다. 위의 사진은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으로, 그의 홈페이지에 가면 각종 활동들의 흔적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의 인상적인 활동을 한국에서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